

국내 첫 방통중 눈물의 입학식

북성중, 정원 90명중 50~70대 88%



국내 첫 방통중입학식인 10일 광주 북성중 입학식장에서 입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야 남편과 나란히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국내 첫 방통중입학식이 눈물의 입학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

10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유등 북성중학교 부설 방통중입학식에는 늦깎이 새내기 중학생들로 북적었다. 정원 90명 가운데 50~70대가 88%로 대부분이고, 40대가 9명, 30대와 10대가 각각 1명이다. 이들은 수십 년만에 받아본 교과서를 고이 쟁겨 장성한 자녀와 손녀의 손을 잡고 입학식장에 들어섰다.

철순의 남편과 나란히 입학한 이모(여·70)씨는 “여자가 배워봤자 연예편지나 쓴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할아버지 탓에 중학교에 못 갔었다”며 “6남매를 다 키우고 이제야 남편과 나란히 입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봉영(57)씨에게는 40여 년의 등교였다. 아내 김옥심(여·50)씨와 함께 입학식장 맨 앞자리에 앉은 그는 교장선생의 입학사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는 2010년 통계청 통계기준으로 약 385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 광주 북성중과 대구 대구고에 국내 최초로 방통중입학식을 개교했다. 1974년 방통중입학식 개교 이래 40년 만에 방통중입학식이 탄생한 것이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외식업중앙회 광주 서구지부에 김상재씨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서구지부(지부장 김상재)는 최근 회원들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정기총회를 열고 현 김상재 지부장을 제11대 지부장으로 재선출했다.

전남도, 순천 행복마을서 '깨끗한 전남 만들기'



지난 8일 순천 대대 행복마을에서 행복마을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각종 국제행사 및 지역 축제를 앞두고 전 시군과 함께 '깨끗한 전남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우리네 ‘아버지’ 삶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내 딸 서영이’ 기획 목표출신 문보현 KBS 책임프로듀서

“내 딸 서영이’가 사랑을 받을수록 오히려 세상 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KBS 주말드라마 ‘내 딸 서영이(유현기 연출)’가 지난 3일 최고시청률 46.7%라는 경이적 기록을 세우고 종영했다. ‘국민드라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배경에는 목표출신 문보현(51) CP(Chief Producer, 책임 프로듀서)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그는 “20여 년간 드라마를 만들면서 더 높은 시청률을 거둔 드라마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은 작품은 처음이었다”며 내 딸 서영이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문보현 CP는 그동안 ‘소문난 칠공주’, ‘수상한 삼형제’, ‘웃어라 동해야’ 등 수많은 인기드라마를 기획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마지막까지 방송이 나갈 때까지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이렇게 훌륭한 드라마를 만들어 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는 문자를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며 힘든 적도 있었지만 뜻깊은 드라마였다고 고백했다.

“내 딸 서영이”는 그동안 드라마의 변방에 머물던 50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다뤄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본을 쓴 소현정 작가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드라마의 주제는 ‘아버지’였다고 밝혔다. 드라마를 기획한 문보현 CP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50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담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드라마가 젊은 남녀의 사랑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것들도 출생의 비밀, 상처받은 생모의 이야기를 주로 다룬 것 뿐 아버지들의 자리는 많이 없었어요. 잘 표현하지 못할 뿐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50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우리네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담은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받을 것은 예상 못했다고 한다. ‘내 딸 서영이’는 선악의 구도가

명확한 드라마가 아니고, 극적인 사건으로 전개되는 작품도 아니었다. 코믹적인 요소가 없다는 사실은 흥행에 치명적인 약점이었었다. 그는 이번 작품이 큰 반향을 일으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문 CP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 이외에도 제작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이 잘 받아들이줘서 더욱 의미있는 작품이었다”며 “종영할 때 시원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이번 작품은 끝난 것이 정말 아쉬웠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냈다. 이어 “고단한 삶을 살며 가족과의 갈등을 겪는 아버지의 모습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아 공감하는 이들도 많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개월간 ‘내 딸 서영이’와 함께 최고의 나날을 보냈던 문보현 CP. 자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을 끝내는 길목에 “앞으로 만큼 작품이 최고가 되게 하겠다”며 “드라마의 패러다임을 바꾼 모래시계와 같은 작품을 앞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보현 CP는 목포 북교초등학교, 문태중학교, 목포고등학교, 고려대 사회과학을 졸업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국제저널에 유산 원인 규명 논문 게재

최범채 시얼병원 원장, 다낭성 난소중후군 연구

시얼병원(병원장 최범채·사진) 불임·습관성 유산연구소가 무월경과 불임을 초래하는 다낭성 난소중후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 논문이 국제저널에 실렸다.

국제저널 ‘분자의학 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Medicine’ 2013년 최신호에 게재된 논문은 불임(난임)을 초래하는 대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다낭성 난소중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상 여성과 다른 단백질의 발현양상을 규명해 이 질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진단표식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주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쾌거를 이뤘다.

다낭성 난소중후군은 일반적으로 내분비 질

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임기 여성의 6~10%가 이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임상적으로 무월경, 생리불순, 피부트러블(여드름), 남성형 체모과다(얼굴, 가슴, 복부), 피부자색 및 과체중으로 고생하며 ▲내과적으로는 당뇨병이나 심장질환과 연관이 많고 ▲부인과학 측면에서는 자궁내막암 발생과 관련성이 많다. 특히 이 질환을 가진 여성은 불임증이나 습관성 유산을 빈번하게 초래하기 때문에 내과학이나 산부인과학 측면에서 초래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시얼병원 연구소(소장 송상진)는 다낭성 난소중후군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발현양상을 규명하



기 위해 최신 분자생물학 기반 단백질 분석을 통해 다낭성 난소중후군 환자의 난포액에 존재하는 난포성장 및 난자형성 관련 단백질 단백질의 발현을 추적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특정 단백질의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다낭성 난소중후군을 예측 진단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진단표식자로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 진단방법의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얼병원 불임 습관성유산 연구소는 다낭성 난소중후군과 관련한 연구를 10여년 동안 꾸준히 매진해왔으며 이미 10여 편의 국제학술지에 투고해왔다. 이 질환과 관련해 연구소는 국내외 학술상을 3회 수상한 바 있다. /채희정기자 chae@

박삼구 회장, 한중우호협회장 연임



박삼구(68)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년 한중우호협회 총회’에서 4년 임기의 한중우호협회장으로 선임됐다. 박 회장은 2005년 협회장에 취임한 뒤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오는 2016년까지 한중우호협회를 이끌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 회장이 협회장으로 취임한 뒤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시진핑 당총서기, 리커창 부총리 등 중국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양혜령치과원장 전남대 동창회 공로패



양혜령 양 치과 원장(전 광주시 의원·사진)이 최근 전남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최상준 전남대 총동창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양 원장은 치대 동창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다문화 M오케스트라 응원합니다”

암웨이, 4800만원 상당 악기 전달

한국암웨이가 지난 9일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된 ‘다문화 M오케스트라’에 4750만원 상당의 악기를 전달했다.

악기는 팀파니 세트, 드럼 세트, 대북, 심벌즈 세트, 호른, 트럼펫, 색소폰, 신시사이저, 교육용 타악기 등 35점이다. 다문화 M오케스트라는 광주여성문화포럼이 주최하고 ‘음악나눔 교육봉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창단한 국내 다문화 가족 단위 오케스트라다.

다문화 가정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국암웨이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음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형성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악기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뉴트리라이프 축구교실 다문화 축구팀을 만들기도 했다. 김유정 다문화 M오케스트라 단장은 “한국암웨이가 기증한 악기들은 다문화 오케스트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자원봉사센터 최상준 이사장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13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2대 신임 이사장에 최상준 남포토건 부회장을 선출했다.

2기 이사에는 노진영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신경숙 전남도여성자원봉사협의회회장, 이현만 삼호교회 담임목사, 이현무 안도청소년수련원장, 박준성 초당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5명이 위촉됐다. 감사에 박승욱 광주지방법원사회 목포지회장 등이 위촉되는 등 이사와 감사 24명이 선임됐다.

올해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주요 사업은 ▲은퇴한 전문직인사단 ‘남도친구들’ 운영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재난재해 구호 지원 ▲시군 자원봉사지도자 소양교육 ▲자원봉사 우수기업 선정 등이다. /오광록기자 kroh@

최태산 교수 학교상담학회 회장 취임



동신대학교 최태산(상담심리학과)교수가 한국 학교상담학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해 앞으로 2년 동안 동아 학회를 이끌어 간다. 한국학교상담학회는 학교상담의 법제화와 대안 제시,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상담사 교육, 학교상담기법 보급 등 학교상담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회로, 최근 공교육의 위기와 함께 그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채희정기자 cha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문복순씨 장남 이지민(삼성전자)군 나창수(전남도 의사회장·순천 나산부인과원장)·강정선씨 장녀 성진양=16일(토) 오후 2시 아름다운 컨벤션 1층 티파니홀.
- ▲서서현(조선대 평생교육원 교강사회 수석부회장)·최경희씨 장남 준오군 박승균·조연자씨 장녀 영신양=16일(토) 오전 11시 40분 수아비스 웨딩컨벤션 2층 크리스탈홀.
- ▲故 이충노·최영순씨 장남 중진군 정진백(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의회 회장)·양인모씨 딸 유선양=16일(토) 오후 1시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4층 그랜드볼룸.
- ▲장영준씨 장남 찬주군 한용순(순천 법무사)씨 딸 아름양=16일(토) 오후 2시 서울 메도리스웨딩홀 4층.
- ▲정희복·정을희씨 장남 일원군 이은옥(전남도청 관공문화공감)·김은옥(전남도청 세정과 세외수입담당)씨 장녀 가영양=17일(일) 낮 12

동창동문회

-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정기이사회=12일(화) 오후 6시30분 자연여(종암고영) 062-655-7500.
- ▲북성중 제12회 동창회 월례회(회장 서운호)=12일(화) 오후 6시 30분 일송정(금남로) 062-529-6998.
- ▲북성중 제13회 동창회 월례회(회장 김성국)=13일(수) 오후 6시 30분 진도회관 062-234-7892.
- ▲장흥장평초등학교 총동문회 제2회 정기총회=16일(토) 오전 11시 장흥장평초등학교 교내 장평관 010-9212-1522.

중진회

- ▲한국 범죄학 대중연합회(회장 최남용)=11일(월) 오후 6시 진도회관(금남로 5가) 062-236-3220, 010-3604-6865.
- ▲무안박씨 광주중진회 정기총회(회장 박화식)=12일(화) 프라도호텔(백운동) 011-618-6633, 011-612-7074.
- ▲전주리씨 대동중학원 광주·전남 지원 이사회 3월월례회의(회장 이승복)=12일(화) 오후 6시 062-225-5636, 5631.
- ▲진주강씨 광주전남 중회(회장 강원규) 정기총회=16일(토) 오전 10시 30분 광주향교 유희관 대강당 062-228-3368.

일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모집

- 602-1366. ▲말레이시아 REAL대학 초청 조기유학 설명회=29일(금) 오전 11시 무등빌딩 5층 유학허브 무료 SLEEP TEST 응시 선착순 접수 062-263-3434.
- ▲프르네 학습중진컨설팅 저소득층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 부진, 성적저하, 교육관계, 점서장애, 게임중독, 010-6392-7137.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중환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 ▲연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 ▲사람모아 가족복지회 회원=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월 3~4회 노인 돌보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무료)=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건·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까지 및 환급금 분석 등. 011-607-4614.
-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 ▲한국웃음협회 회원=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김경호(여/71세)	故김형태(남/90세)
子/子婦: 박재홍/김정선, 지홍/유미연, 태홍/손은미 喪主: 박종환	子/子婦: 김원익/신은숙, 승규/김수진, 병국/이소연 女/妻: 김복실/이만규, 복연/허정호, 옥금/김남숙 숙회: 박성현, 혜자/김성순
•호상: 301호 •장지: 영암 신복 선영	•발인: 3월 12일 •장지: 영암 관산 선영
故박삼남(여/81세)	故김중주(남/77세)
子/子婦: 장영기, 기희, 원기 女/妻: 정기순/이희재, 후덕/추정호, 규영	子: 김도원 女/妻: 김지은, 두신/추정호, 희선, 명보 未亡: 박영희
•호상: 401호 •장지: 화순 화평면 선영	•호상: 402호 •장지: 해남 선영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